

제약바이오 인사이트



제약바이오 Analyst 허혜민

hyemin@kiwoom.com

RA 신민수

alstn0527@kiwoom.com

비바람과 가뭄이 쓰지만 약이 되길 #IPO

나스닥 바이오텍 1Q22 IPO 시장 전년 대비 성과 부진. 다만, 대기 IPO 수요 75개로 올해 중순 대거 몰릴 수 있으며, IPO 정상화는 투자심리 회복의 중요한 지표가 될 것. 반면, 국내는 8월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되어 상장이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음. 자금조달을 위해 바이오텍 업체들이 기술이전 및 우수한 데이터 발표 등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여 향후 신뢰도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 미국, '22년 1분기 신주 발행 부진으로 신설 바이오텍 자금조달 환경 어려워 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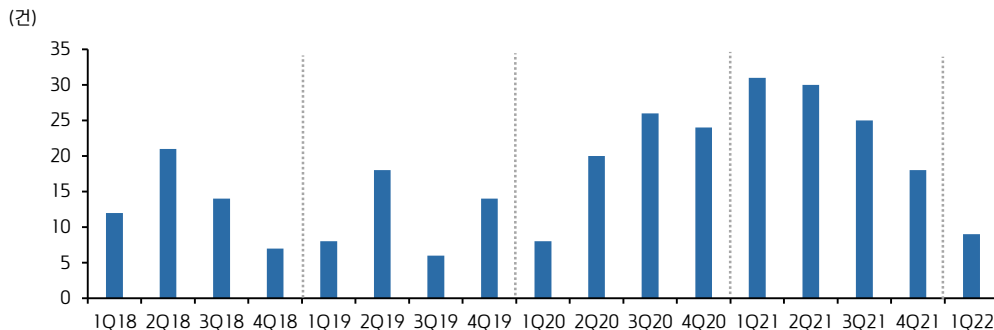
>> 생명공학 기업 **상장 9개('22.1Q) vs 31개('21.1Q)**

평균 공모 금액 또한 \$83mn('22.1Q) vs \$146mn('21.1Q)로 하락

다만, '20~'21년이 IPO 초호황이었던 점 감안하면, '18.1Q 12개와 '19.1Q 8개 IPO 건 수와 크게 다르진 않음.

>>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21년 신규 상장 바이오텍의 주가 지속 하락하여 공모가 이하로 거래되거나, 주가가 지속 하락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면서 신규 상장 바이오텍에 대한 관심이 낮은 상황

해외 바이오텍 IPO 분기별 현황



자료: BiopharmaDiv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 올해 중순 나스닥 바이오텍 IPO 정상화에 따라 투자심리 회복 전망

>> 지난주 Belite Bio, HilleVax, Intrinsic Medicine 3개의 바이오텍에서 IPO 신청.

나스닥 헬스케어 상장 책임자 Jordan Saxe는 **75개 이상 제약사들의 IPO가 대기하고 있으며, 아무도 상장을 철회하지 않았다고 말할**. 이는 바이오텍 업체들이 공모 자금을 통한 자금조달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거나, IPO 시장 및 밸류에이션이 정상화 될 것으로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음.

>> 또한, 나스닥 바이오텍 대기 IPO 수요가 높기 때문에 **올해 6~7월 대거 몰릴 수 있음**.

IPO가 정상화 될지 여부가 향후 생명공학 분야 **투자 심리 및 신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 지표가 될 것으로 보임**.

>> 지난 2년간 너무나 많은 업체들이 상장을 하면서, 이미 상장 가능한 우수한 업체들 대부분 상장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으나, 최근 다국적제약사의 인력 구조조정이 대거 진행되고 있어 이러한 **인력들을 흡수하는 비상장 바이오텍 업체들의 펀더**

멘털 개선이 기대.

- >> 또한, 바이오텍에 대한 VC 투자 감소 중으로 **추가 자금 조달을 위해서는 좋은 데이터를 내놓거나, 기술이전 등의 성과를** 내야함. 이는 바이오텍 업체들의 긍정적 성과 및 모멘텀으로 작용하여 섹터 투자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 '21.3월부터 '22년 3월까지 신생 업체에 대한 월별 벤처 투자 61% 자금조달 감소.
 - 바이오텍 업체들은 다음 라운드의 자금 조달 채우기가 어려워지면서 밸류에이션 재평가 될 수 있으나, 이는 향후 유통 시장에 밸류에이션 부담 완화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 국내, 8월 중순 기술특례상장 평가 변경 예고. 해외 바이오텍과 딜 경쟁의 진검승부

- >> 기술 표준평가모델 개발 진행 중으로 업종 특성 반영되어, 8월 중순 평가기준이 마련될 예정이라고 보도. 평가기준 공개된 바 없어 예측하기 어려우나, 상장 문턱이 높아져 기술만 보유한 **바이오텍의 IPO 건 수 감소 가능**. 임상 전문의, 약학전문가 등의 전문 심사를 받아 실제 출시 가능한지 및 시장가치 등을 세밀하게 평가할 것으로 알려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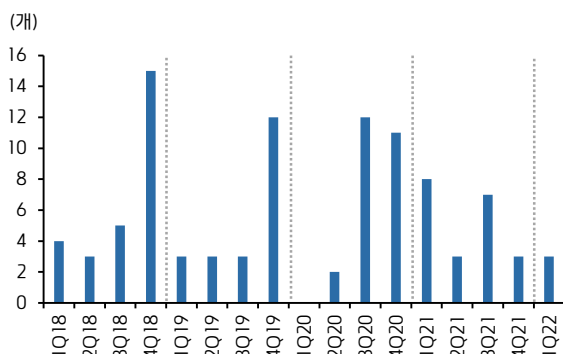
- >> IPO 밸류에이션 또한 과거 **고밸류에이션의 틀에서 새롭게 다시 재편될** 것으로 예상. 임상 초기 단계 바이오텍에 대한 적정 가치 고민이 시작될 것으로 보임. 다만, 전임상 및 초기 임상의 긍정적 데이터에 따라 신뢰 회복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

- >> **해외 비상장 바이오텍 업체들 또한** 추가 자금 조달을 위해서 **기술 수출 등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국내 바이오텍 업체들과의 **기술 경쟁 심화**될 수 있음. 이러한 상황을 **빅파마들은 즐거운 쇼핑의 기회로 삼을** 것으로 보이며, 최근 나스닥 바이오텍과 빅파마들의 주가 차이는 이를 포함한 인플레이션 방어주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

- >> 국내 바이오텍 업체들은 기술 경쟁력, 신속한 개발 속도, 경쟁사들과의 차별성 등이 필요. 바이오텍의 진검 승부 및 옥석가리기 될 것으로 전망. 단기 모멘텀 보다는 기술 레퍼런스, 차별성, 빅파마 니즈 충족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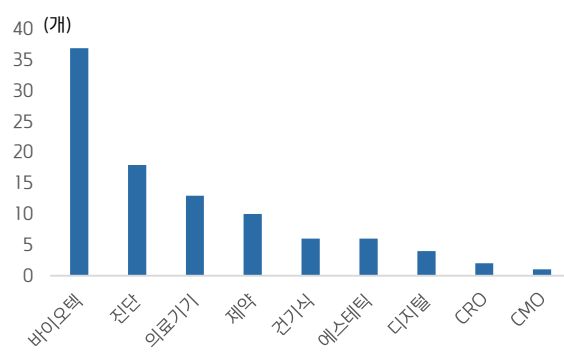
- >> 올해 중순 나스닥 바이오텍 IPO 시장 정상화되어 생명과학 분야 투자심리가 회복되고, 다수의 기술이전 모멘텀 발생 및 우수한 데이터 발표 등이 이어진다면 **기술 시장 업황 개선**될 것으로 기대. 게다가, 이번 **ASCO 2022 초록 접수는 6,000건 이상**으로 전년도 5,400건 보다 많고 대면으로 개최되며, **기술 파트너십 최대 행사인 BIO International convention** 또한 6월 대면으로 개최되는 만큼 우수 데이터 및 기술 거래 모멘텀 기대.

국내 제약/바이오 상장 건 수 분기별 추이



자료: 전자공시,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18년부터 제약/바이오 분야별 상장 건 수



자료: 전자공시,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4월 12일 현재 상기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